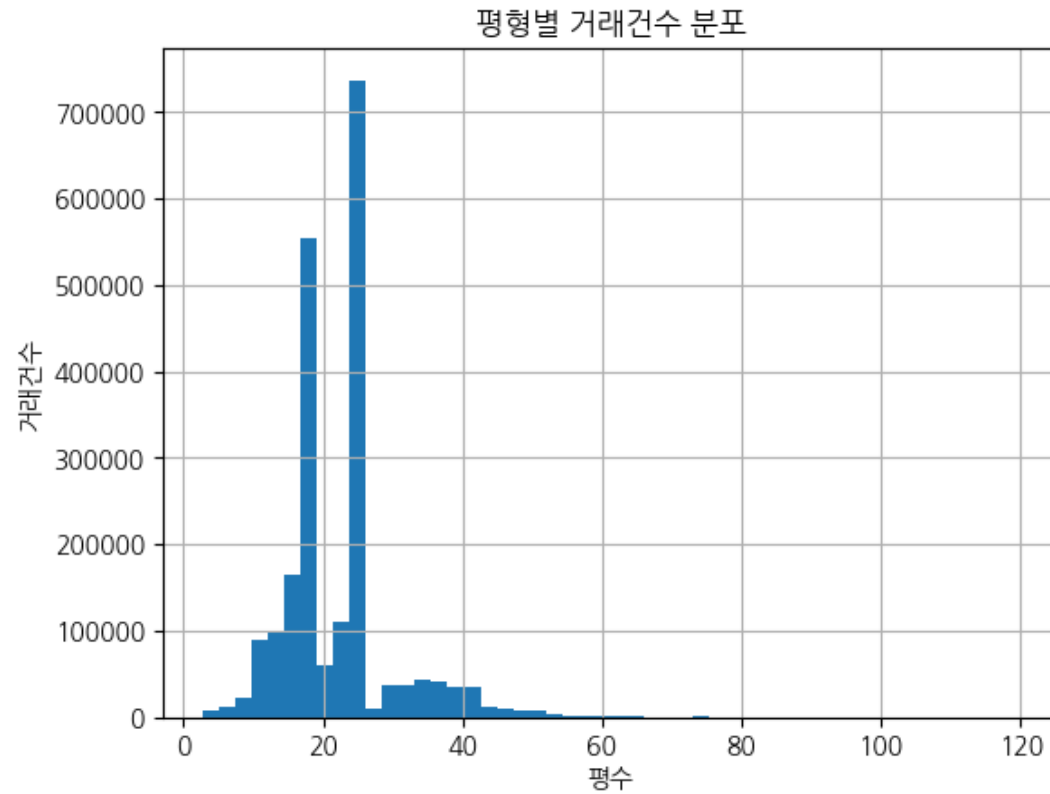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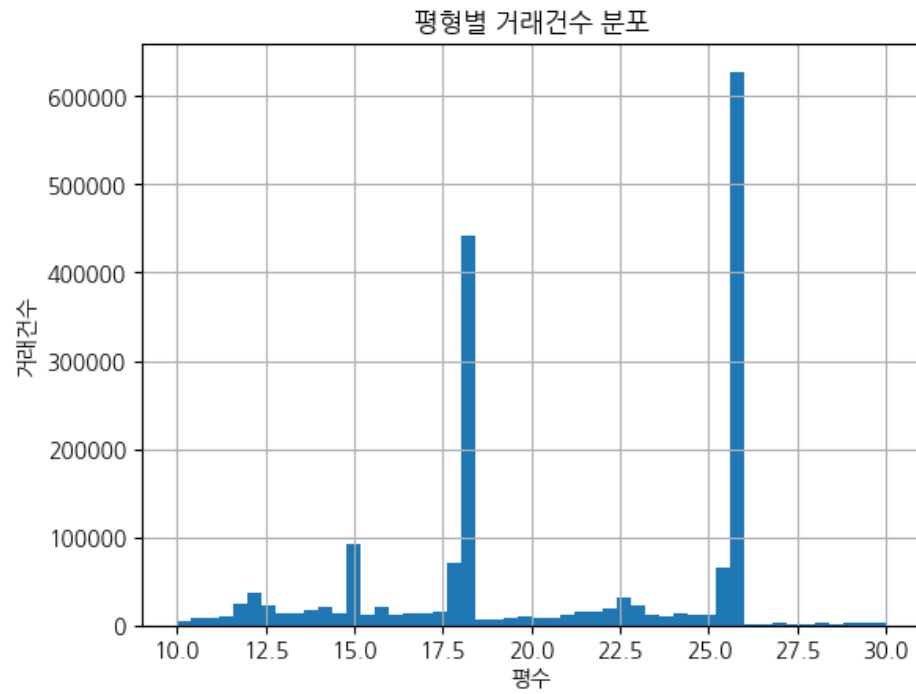
<평형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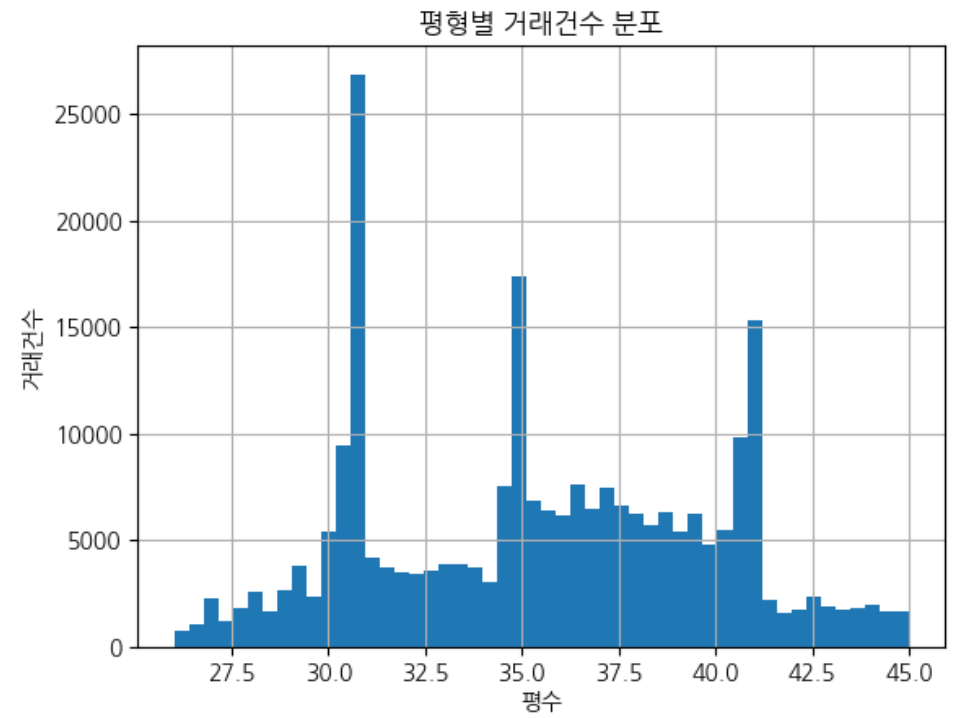
- 주로 20평 근처에서 거래 건수가 많음.
- 60평 이상부터는 거래 건수 극히 소수.
- 누락데이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공시지가 분포와 비슷했음.

\* 2018-2022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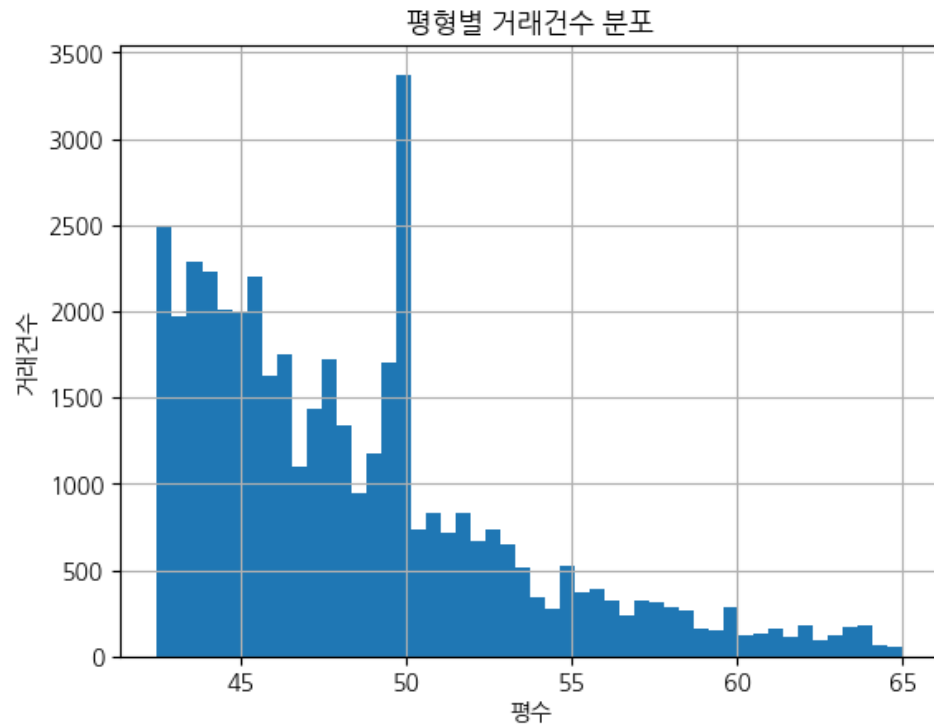
\*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/아파트별로 존재하는 데이터 수 차이가 큰 편임을 참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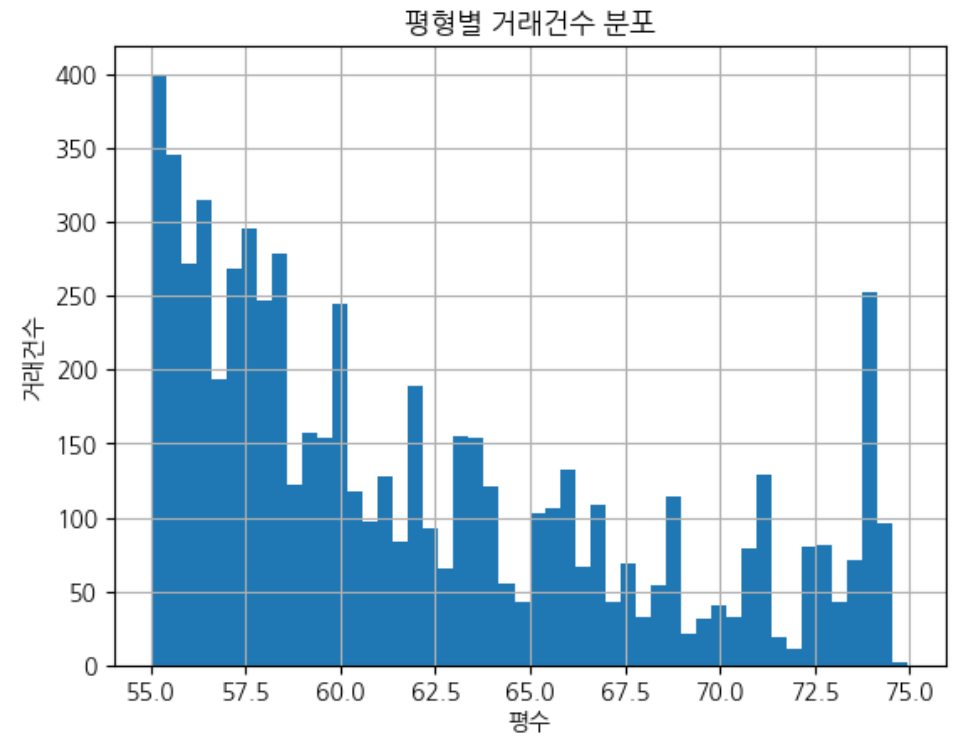
- 10평~30평 분포
- 15평, 17.5평, 25평 언저리에서 거래 건수 증가



- 26평~45평 분포
- 30평, 35평, 40평 언저리에서 거래 건수 증가
- 일괄적으로 30평대, 40평대로 분류하기에 분포 차이가 존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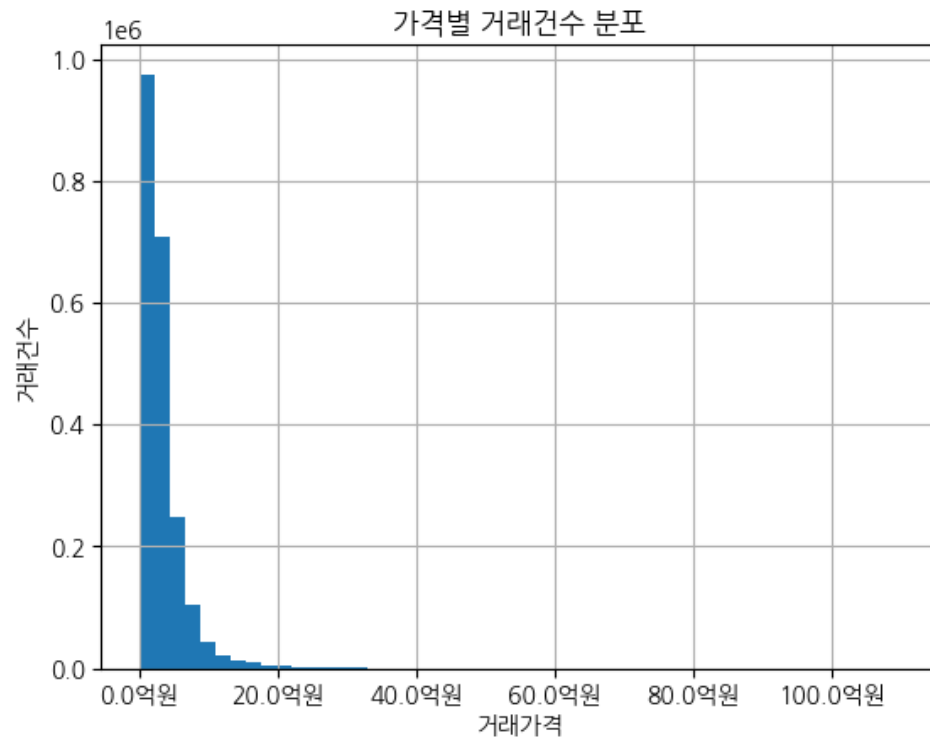


- 42.5평~65평 분포
-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어떻게 분류하든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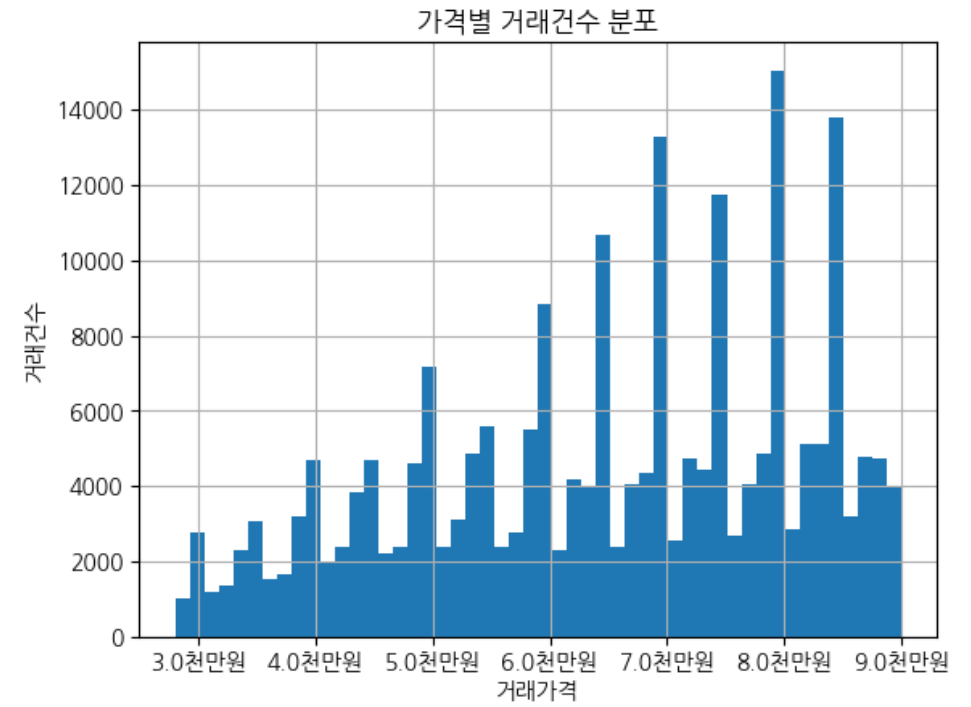


- 55-75평 분포
- 분포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1) 거래건수가 매우 적고 2) 평수가 구분되는 지점들이 매우 촘촘해서 50평대, 60평대 등으로 분류해도 무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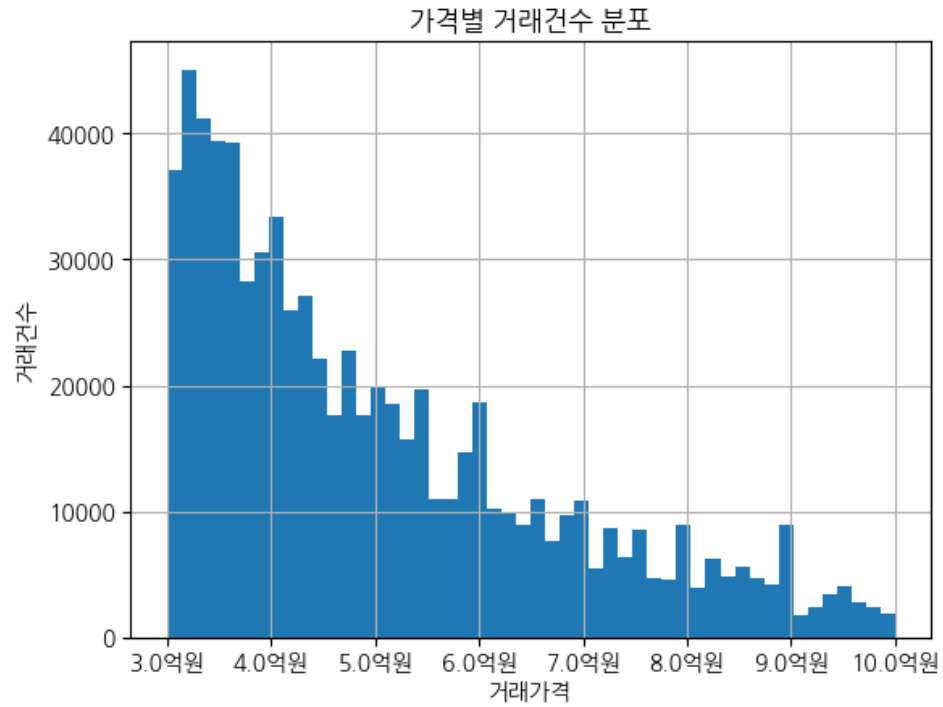
### <가격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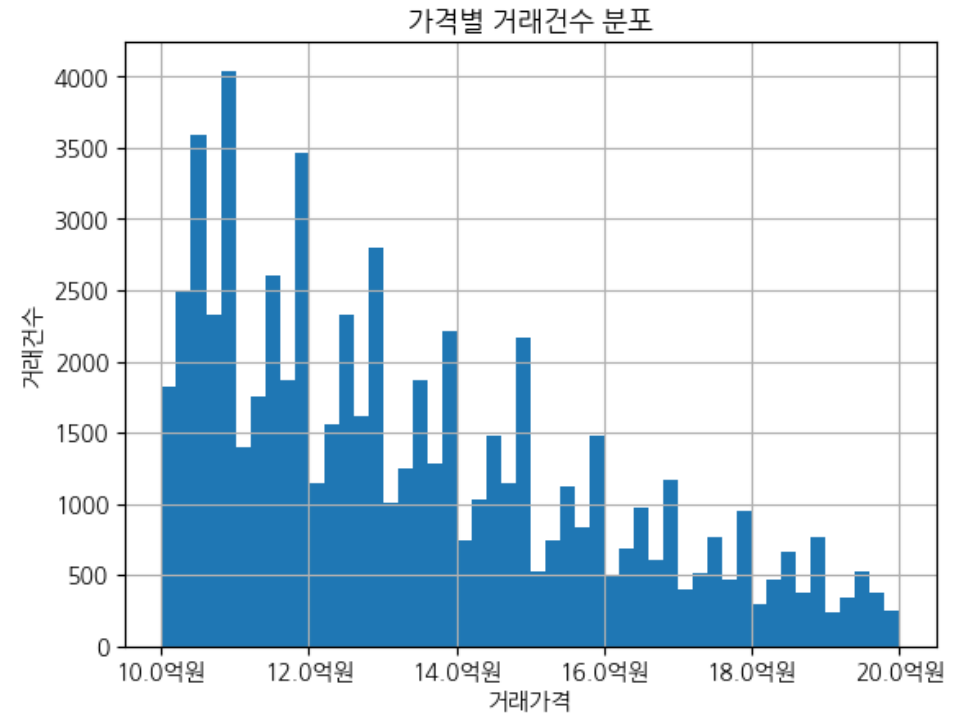
- 주로 10억원 이하의 거래건수가 많음.
- 30억원 이상부터 거래건수 거의 없음.
- 거래가격 최대치는 약 110억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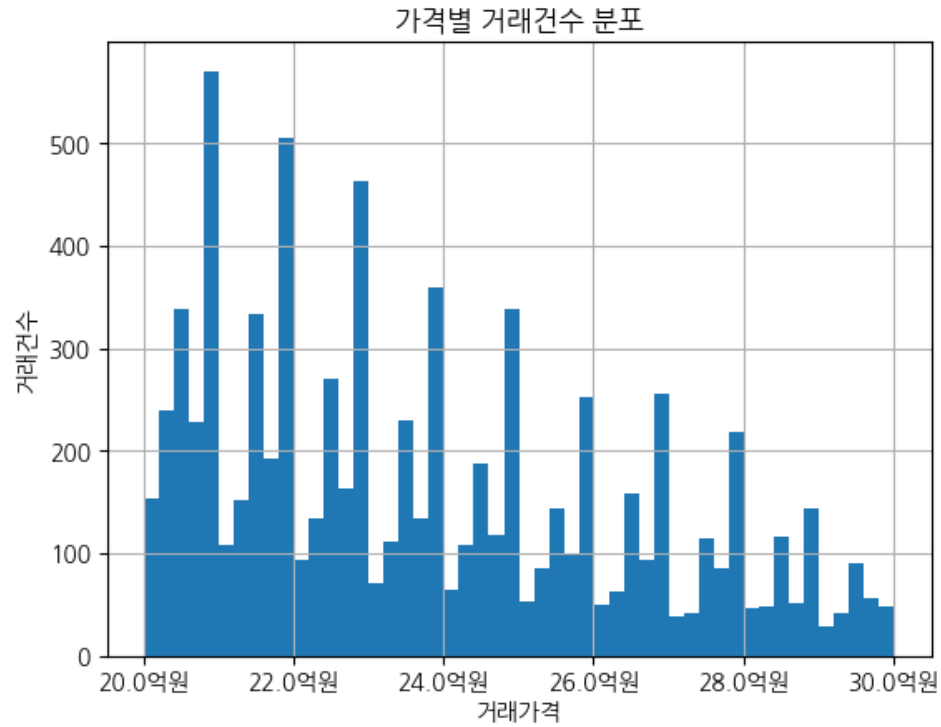
- 2.8천만원 ~ 9천만원 분포
- 가격의 분포가 천만원 단위로 계속 반복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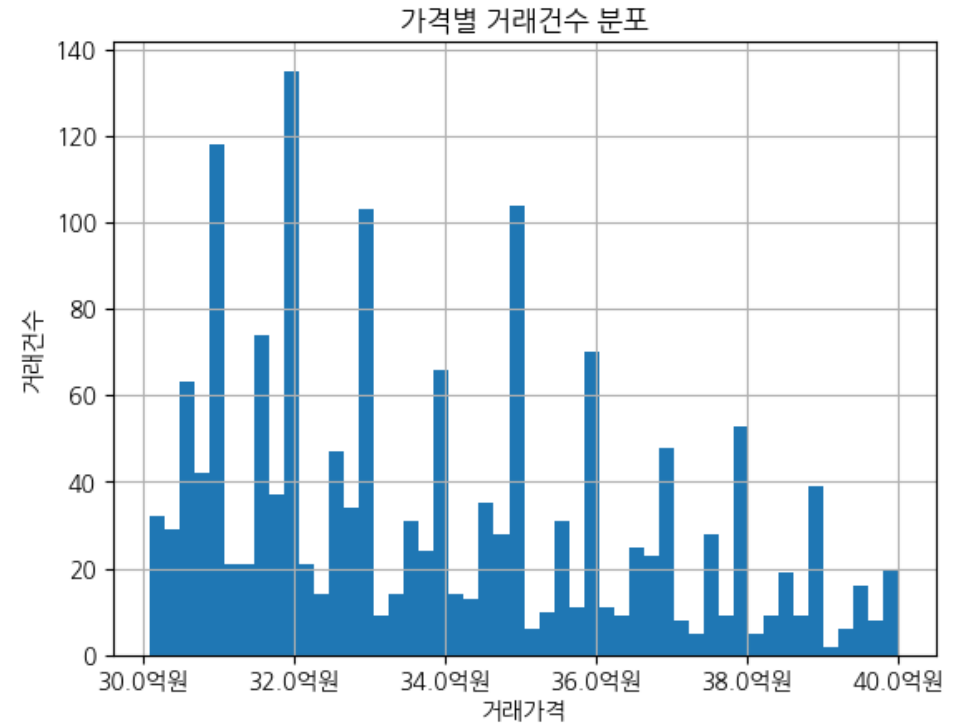
- 3억 ~ 10억 분포
- n억인 지점에서 거래 건수가 가장 많긴 함.



- 10억 ~ 20억 분포



·  
- 20억 ~ 30억 분포



·  
- 30억 ~ 40억 분포

- 40억 이상은 거래건수가 너무 적어서 생략.

- 계속해서 가격 분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.

- 거래건수가 특정 지점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, 이를 기점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유의미할지는 생각해볼 문제.